

「情報化社會」 공감대 형성

李宗淳 체신부 통신정책국 정보통신과장



필자

-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 ▲체신부 법무담당관
- ▲체신부 정보통신과장 (현)

1. 머리말

87년은 우리 정보통신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 이땅에 전기통신이 도입된지 1세기, 컴퓨터가 첫선을 보인지 4반세기만에 그동안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정보화사회를 향해 힘찬 도약을 다짐한 한해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따라서 정보의 전달매체가 되는 정보통신이 사회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보화사회를 네트워크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인 C & C(Computer and Communications)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통신망은 대량의 정보를 신속히 필요한 곳에 전달해 주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사회의 고속도로나 우리 인체에서 신경계에 비유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와같이 중요한 통신망의 건설과 품질 개선에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금년에 시설면에서 1천만회선을 돌파하여 전국의 전화체제를 완전히 해소하였고, 수동식 교환설비를 모두 자동교환설비로 대체, 전국의 전화 자동화를 마무리지음으로써 기본통신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게 돼, 이를 바탕으로 도래하는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배경으로 정부는 우리 통신의 발전상과 중요성을 국민일반에 널리 알리고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올해를 “정보통신의 해”로 정하고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별 추진내용의 평가를 통하여 “정보통신의 해”를 결산해보고 국내 정보통신의 좌표를 재점검하고자 한다.

2. 중·장기 계획 수립

급속히 변하는 기술발전 및 통신수요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래하는 정보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2000년대를 향한 전기통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다. 여건변화에 따른 통신수요를 재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며, 통신사업자, 학계, 연구소, 산업계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조정을 거쳐 장기계획을 확정하였다.

통신망 발전계획을 국토개발 계획과 연계, 상승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통신망 구축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한 통신망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까지 5개년 단위로 전화망, 패킷망, 이동체통신망 등 개별 통신망을 고려한 종합통신망 발전계획과 경제, 문화, 산업 여건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통신망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또한 금융, 무역, 첨단산업등 지식산업집중 지역에 최첨단 통신서비스 공급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텔리포트(Teleport) 건설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환상의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종합정보통신망(ISDN)서비스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행착오 등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ISDN 시범 서비스 시행에 관하여도 아시아 국가간의 공동추진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미래연구활동 강화

도래하는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통신정책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구활동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국내 유관단체 및 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등 대외협력 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하였다.

전기통신관련 학술단체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통신정책 방향, 첨단기술 및 정보통신개발 등 정보통신 고유분야는 물론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등 제반부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 고용, 법령, 교육문제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통신학회, 미래학회 등 13개 학회와 4개 대학부설연구소에 4억 5천만원 을 지원하였다.

4. 제도 개선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는 관련제도의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제도상의 제약은 때때로 새로운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보통신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던 사항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전화적체 해소 및 전국전화 자동화 완성이후 통신수혜 소외대상에 대한 통신복지 대책으로 도서지역 등에 시행 하던 전신전화 채권 면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고, 농어촌, 벽지의 공중전화를 대량공급하는 한편 전자전화번호부, 장애자용 공중전화 및 부스개발 등 장애자에 대한 통신복지대책 등 사회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일반교환회선 서비스를 함으로써 저렴한 요금으로 정보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이용의 대중화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보통신 역무제공 승인기준을 개정하여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의 우수한 기술전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정통신회선 사용제도를 개정하여 산업체의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등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부가가치통신(VAN)의 기초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VAN사업의 민간개방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다.

5. 마인드 확산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통신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선장 소개하고 정보화사회의 밝은 미래상을 계몽, 홍보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있어서 통신의 중요성과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의 해”를 맞아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 행사는 전국행사와 지역행사로 안배하여 전국전화 자동화완성 및 전화시설 1,000만 회선들과 기념식등 기념행사 2회, “미래사회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역할”에 관한 주제로 한국미래학회와 통신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사회과학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강연회 및 학술대회 16회, 미래 정보화사회에 관한 논문 및 현상공모, 전화를 주제로한 문예작품공모, 한국소프트웨어 공모전, 정보통신과 미래사회를 주제로한 청소년 미술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국제행사로는 “뉴미디어 국제세미나”등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4회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 전기통신박람회(Telecom '87)”에는 산업계, 관련기관 및 정

부대표 등 대규모 시찰단이 참석하여 우리통신의 발전상을 세계의 통신관련자들에게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CCITT연구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장차 이나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도래하는 정보화사회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정보통신과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므로써 기술·과학입국 건설에 기여케 한다는 목적으로 금년초부터 “전기통신 미래관” 건립계획을 검토하여 왔다.

지난 3월 공모된 기본구상 및 개념설계가 6월말 확정됨에 따라 설계작업이 진행중이다. 오는 8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내에 설립될 전기통신 미래관에는 피도전시관, 특수영상관, 실험실습관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전기통신문화의 전시, 첨단전기통신기술의 모의실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장소로 꾸밀 계획이다.

6. 맺는말

기술발전은 인간 생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우리가 맞고 있는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빠르게 우리 생활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과정 이후에 나타나게 될 정보화사회에 대한 연구와 준비의 시급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을 “정보통신의 해”로 정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과정을 되돌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정보화의 진행은 사회의 일부계층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사회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사회과학적 연구활동에 온국민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해”에 추진되었던 각종사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의 해 주요기념사업 및 행사

- ▲ 전국 전화자동화 완성 : 7월 1일, 세종문화회관, 한국전기통신공사
- ▲ 전화시설 10000만회선 돌파 :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 한국전기통신공사

- ▲ 전화자동화 완성에 따른 지역별 기념 : 4~6월, 8개지역, 한국전기통신공사

공 모

- ▲ “전화의 노래” 가사, 곡 공모 및 경창대회 : 6~9월, 한국전기통신공사
- ▲ 전기통신 관련 산업디자인 공모 : 6~9월, 한국전기통신공사

전 시 회

- ▲ 범용소프트웨어 공모 및 전시회 : 7월 9~11일, 무역진흥공사전시관, 정보처리전문가협회

경진 대회

- ▲ “정보통신과 미래사회” 주제 청소년 미술대회 : 11월 16일, 체신부

학술 대회

- ▲ “체신의 날” 기념 학술강연회 : 4월 22일, 체신부, 한국통신학회
- ▲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세미나 : 5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통신정책연구소
- ▲ 뉴미디어 국제세미나 : 6월 15~17일, 힐튼호텔, 한국데이터통신
- ▲ 컴퓨터통신원샷 : 6월 23~24일, 올림피아호텔, 한국통신학회
- ▲ 하계학술대회 : 6월 29~30일, 조선대학교, 한국행정학회
- ▲ IEEE아·태학술회의 : 8월 25~28일, 웨스턴위커피호텔, 전자공학회, IEEE한국지부
- ▲ 미래정보화 사회와 교육학술대회 : 8월 27일, 경전련회관, 통신정책연구소
- ▲ AFCEA아·태회의 : 9월 1~3일, 힐튼호텔, AFCEA.
- ▲ 전자통신종합학술대회 : 9월 10~11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 예약정보시스템개통 특별강연회 : 9월 11일, 제주그랜드호텔, 한국데이터통신
- ▲ 정보사회의 도래와 인간생활 특별강연회 : 9월 23일, 유성관광호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 국토개발과 종합통신망계획 세미나 : 9월 25일, 부산코모도호텔, 통신정책연구소
- ▲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교과과정개신 공청회 : 10월 30일, 청주상공회의소, 통신정책연구소
- ▲ “정보혁명의 물결과 정보화사회의 모습” 특별강연회 : 11월 10일, 전주관광호텔, 정보통신진흥협회.
- ▲ “정보혁명의 물결과 우리의 대응” 특별강연회 : 11월 13일, 강릉동해관광호텔, 한국데이터통신
- ▲ 추계학술발표회 : 11월 14일, 과학기술원, 한국통신학회

기 타

- ▲ 미래정보화사회 주제 TV특집방송 제작방영 : 5월 26일~6월 30일, KBS 1TV, 체신부
- ▲ “정보통신과 미래사회” 주제 초·중학생 퍼즐게임 : 3월 21일, 6월 26일, 소년한국, 소년조선, 소년동아, 한국데이터통신
- ▲ 기념우표발행 및 기념담배 발매 : 6월 9일, 체신부, 전매공사, 체신부